

Vol. 2023-51
2023. 08. 08.

정책특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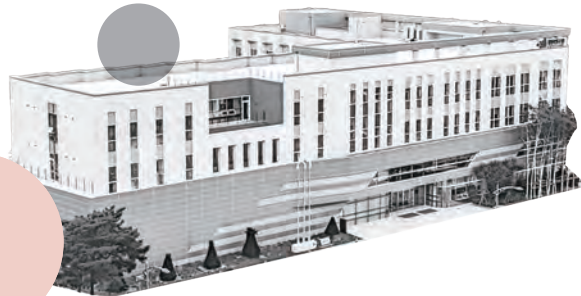
ISSN 2951-3510

정전 70주년, DMZ와 접경지역의 자유와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자

신 중 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joongsop@hanmail.net



 강원연구원

정전 70주년, DMZ와 접경지역의 자유와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자

강원특별자치도 면적 가운데 28.5%가 접경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경제가 침체되어 활력을 상실하였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되면서 변화의 길목에 들어섰다. 여러 전적지와 전쟁의 흔적을 안고 있는 접경지역은 자유와 평화, 경제적 번영의 상징이 될 수 있다.

DMZ와 접경지역은 1953년 정전 협정의 산물이고 올해는 정전 70주년이다. 정전 협정으로 생성된 접경지역이 자유와 평화, 경제적 번영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평화 공존과 통일의 의미를 살피볼 필요가 있다. 정전 협정으로 남북의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대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결실은 없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자 이기백이 지적하였듯이 한국사에서 분열의 시기는 길지 않았고, 분열된 남북 간 협상이 통일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다. 중요한 것은 내부 통합이라고 하였다. 핵무장을 한 군사력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남한에 뒤지는 북한이 우리 사회 일부의 기대처럼 선뜻 대화의 장으로 나와 긴장을 완화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세를 낮추어 대화를 요청한다고 해서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도 없다. UN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남북 분단 상황을 받아들이고,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며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화를 요청하거나 통일을 외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위협일 수도 있다. 당분간 남한과 북한을 독립된 두 나라로 인정하고,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접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책특독’은 강원도 미래가치의 현재화를 위해 시의성 있고 실용적인 정책발굴 및 아이디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강원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하실 경우에는 「정책특독」 및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휴전선과 DMZ의 의미

I 휴전선과 DMZ의 역사적 의미

- 휴전선을 기준으로 DMZ라는, 쌍방에 비무장의 땅을 남겨 둬으로써 ‘열전(熱戰)’에서 ‘냉전(冷戰)’으로 전환됨, 그러나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해석하려면 많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볼 수는 없음. 북한은 DMZ 아래로 땅굴을 파서 적화의 야욕을 드러내었고 현재도 남북의 군인들이 총부리를 서로 겨누고 있음
 -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 한다면 현재의 평화는 쌍방의 철통 경계를 통해 만든 평화이기 때문에 쌍방 철통 방어가 없으면 평화도 없음, 따라서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임
-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DMZ를 경계로 한, 과거 70년 동안의 남한과 북한의 변화
 - DMZ를 경계로 남북은 70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를 세우고 그 체제의 특성을 드러냈음
 - 북한은 1인 독재 전체주의를 구성하여 자주·군사 강성대국을 추구하며 세계적으로 소외, 그 결과 인민은 굶주리고 자유가 없는 노예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한 남한은 개방적인 자유무역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근대화와 민주화에 성공하며 보편적인 인류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였음

I 지금도 남한에서 계속되는 두 세력 사이의 이념적 내전

- 한 집단 : 분단의 책임을 미국과 남한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대한 출발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분단극복을 지상과제로 삼음
 - 6·25 전쟁의 원인은 북한과 중국,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믿음
 - 한반도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평화·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 평화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음
- 다른 집단 : 국제 정세상 한반도 분단은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출발을 행운으로 여김
 - 6·25 전쟁은 북한의 명백한 침략전쟁이며, 북한이 아직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고 확신함
 -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에 자부심을 가짐
 - 남한에서만이라도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인간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과제라 생각함
 - 우리가 냉전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와 맺은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함

▶ 사회주의나 북한의 이데올로기가 명백한 실패로 끝난 지금도 시대착오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통일된 시각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02

다양한 평화개념과 북한의 평화개념

I 다양한 평화개념

● 일상적 평화개념

-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의 평화 : 전쟁이 없는 상태
- 한 국가 안에서 무력 충돌과 같은 갈등이 없는 상태
-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갈등이 없는 상태
- 개인의 내면이 편안한 상태

● 갈통(Johan Galtung)의 평화개념

- 소극적 평화 :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없는 상태
- 적극적 평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자의 착취, 억압과 같은 구조적 폭력과 이러한 구조적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
- 갈통은 전쟁, 핵, 가난, 생태계 파괴, 성차별, 인종차별까지 구조적 폭력에 포함
-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화롭고 비차취적인 사회구조를 확립해야 함

● 상충하는 남북의 평화개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원칙과 입장은 명백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 사람 자체의 의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에서 모든 외국 군대들이 철거하고 남북조선 인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조선 문제를 토의하며 자기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적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 김일성 주석 -

“평화라는 것은 무슨 협정이다, 조약이다 하여 종이 한 장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사만 분명히 있다면 협정이 없더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휴전 협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휴전 후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가 알기에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1만 3천여 번이나 휴전 협정을 위반했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 -



I 노예의 평화와 자유인의 평화

• 노예의 평화

- 자유는 죽음을 요구할 수도 있음, 그래서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노예의 존재 양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예는 자유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지 않음

• 자유인의 평화

-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인은 자유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자유를 위해서라면 전쟁을 할 각오도 하며, 자유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굴욕을 감수하면서 얻은 평화, 노예의 평화를 단호히 거부함
- 자유 평화만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기 때문임

▶ 평화는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평화의 개념을 확장한 갈통의 평화관을 남북관계에 적용하기는 어려움.

▶ 평화의 개념에 대한 남북 정치지도자의 인식이 다르고, 남한에는 북한의 평화론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가진 사람이 많음

03

자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입장

I 경제적 우위 변화에 따른 남북의 태세 변화

•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는 남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옴

- 북한은 평화적 조국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의 경제·문화 교류를 시행하고, 남북한 서신 거래와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며 남북 간 협상을 시행할 것을 남한에 제안함
- 북한은 군대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남북이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며, 남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함
- 북한에서 남아도는 전기, 백미, 곡류, 의류, 취사도구, 방역 약품 등 구호 물품을 남한으로 보내겠다고 함

• 남한이 경제적으로 북한에 앞서고, 소련과 동구가 붕괴된 뒤에는 태도가 수세적으로 변함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김일성 주석 -



● 남한이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자 남한의 지도자는 공세적이 됨

“우리는 북한에 세 가지를 보장하고 있다. 첫째, 우리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 둘째, 북한의 경제 회복을 돕는다. 셋째, 북한의 국제적 진출에 협력한다.”

- 김대중 대통령 -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다. …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비핵화야말로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

▶ 이러한 역사를 살펴볼 때 남한과 북한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해야 함

04

핵 포기 없는 북한과 새로운 남북관계, 그리고 접경지역

I 북한에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냉전 시대의 도래

● 북한의 핵무장으로 사라진 개혁과 개방

- 한동안 우리는 북한이 핵무장을 한 뒤에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개혁과 개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어짐
- 북한은 핵선제불사용 원칙을 버리고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함으로써金正은의 판단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명문화함
-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가 있을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으로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가능성 사라짐

● 새로운 냉전 시대의 도래와 북한의 생존 전략

- 미국과 중국이 맞서며 세계는 다시 새로운 냉전 관계라는 국제 질서가 세워짐
- 새로운 냉전은 북한에게 중국과 러시아와 교류협력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북한을 통제하거나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켜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동시에,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림



● **북한 붕괴에 대한 기대 접어야**

- 한동안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인 것으로 밝혀짐
- 분단과 6·25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귀속시켜온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는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그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왕조와 군주제라는 정치체제 아래에서 살아왔으며, 특히 북한 주민들은 군주제, 일본의 지배, 족벌 왕조 외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임
- 이와 함께 북한, 중국과 베트남은 동유럽과 달리 소련이 지도하지 않은 ‘반식민지 혁명’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동유럽이 붕괴한 것처럼 붕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Ⅰ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

● **남북관계를 ‘특수 관계’에서 ‘두 국가론’으로**

- 지금까지 남한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통일을 의식하여 ‘특수 관계’로 규정하여 왔으나 이제 이 관계를 넘어 두 국가로 인정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음
- ‘먹고 먹히는’ 방법이 아니면 평화 통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상대를 각기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함
- 우리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전환하면 북한을 중국이나 미국처럼 생각하고 교류하면서, 중국이나 미국에 대하는 것처럼 통일하자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함

● **새로운 냉전 시대에 변해야 할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

- 북한에 대한 군사 억제력과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이 적화통일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해야 함
- 강력한 국방력을 배경으로, 접경지역의 발전을 막아온 장애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함
- 새로운 냉전의 도래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당분간 오지 않을 것임
- 접경지역의 번영과 평화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함

▶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도, 개혁개방을 하지도, 붕괴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